



Delivered Electronically

수신: 케이티앤지 이사회, 임민규 의장님

참조: 김명철 / 백종수 / 고윤성 / 손관수 / 이지희 / 백복인 / 방경만

2023년 12월 1일

존경하는 임민규 의장님,

현 사장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주주들은 다가오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새로 선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케이티앤지의 장기투자자로서, 사장 후보 선정 과정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 첫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검토 기간 확보
- 둘째, 전현직 임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후보평가군에 포함
- 셋째, 사후 검증을 위해 선정 및 평가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존

현 백복인 사장님이 3연임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상장회사에 걸맞는 최소한의 상식, 공정성, 투명성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충격과 함께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단 11일 만에 백복인 사장님을 단독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외부 후보들을 인터뷰는 물론, 연락이라도 할 수 있었는지 의심됩니다. 2018년 후보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요건을 아예 케이티앤지의 임원만으로 한정해 놓고, 단 사흘만에 지원기간을 마감시켰습니다. 혹시, 이사회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직 임원들이, 사장을 버젓이 두고 소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장후보의 선출은 거버넌스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감독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대표이사로 모셔오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이와 반대로 밀실선거를 계획, 실행한다면, 수십만 주주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로운 사장 선정은 KT&G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사회는 선관주의 의무를 명심하시고, 사후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평가기록을 엄정히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사추위의 평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받은 자료는 “호텔에서 만나 이야기 했다”는 손글씨 몇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사회가 선관 의무를 다했다고 믿기 힘듭니다.

새로운 사장 후보를 선정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고려하시고 12월 5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상현 드림
shlee@flashlightcap.com